

한국인삼의 세계화전략 구상

생산자단체를 통한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⁰⁾

2003. 9. 1

이 동 필

(ldphil@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 이 자료는 2003년 4월 중순 농특위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한국인삼산업전략협의회 발표를 위해 다시 정리한 것임

1. 인삼산업의 의미

- 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名品
 -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 축적된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국가 전매품으로서 쌓아 온 명성과 신용 등으로 인삼종주국의 위상 확보
 - 우리나라 인삼에는 영양분의 흡수와 소화촉진, 신진대사, 원기회복, 피로·무력감·식욕부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사포닌 성분이 34종이나 포함되어 화기삼(15종), 전칠삼(14종), 죽절삼(8종)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짐
 - 2002년 해외 19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인지도 조사결과 인삼이 27%로 1위(농산물유통공사)
 - 동양의 신비한 영양으로 태권도, 김치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상징물
- ② 발작물로 한계농지 및 노령화, 부녀화 한 노동력과 같은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농산물로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
 - 2002년 현재 인삼생산에는 약 2만3천여 호의 경작농가와 520여 가 공업체와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참여
 - 인삼은 2001년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0.6%, 재배농가수의 1.4%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의 5.5%를 차지

<표 1>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있어서 인삼의 비중(2001)

구 분	농축산물(A)	인삼(B)	구성비(B/A)
재배농가수(천호)	1,354	19	1.4
재배면적(천ha)	2,089	13	0.6
수출액(백만\$)	1,370	75	5.5

- ③ 고급화 및 다양화하는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부응하는 고급건강식품으로써, 그리고 다양한 한약제품이나 의약품제조가 가능한 원료 농산물

- 소득수준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건강식품 또는 한약재로써 인삼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AIDS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치료제로써 인삼의 새로운 약리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고급의약품 원료로써 인삼수요

④ 인삼산업의 육성을 위한 오랜 세월동안의 범 국가적인 노력 추적

- 100여 년 이상 국가의 전매품으로 보호·관리해왔으며,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인삼산업의 육성·관리를 위한 「인삼산업법(1995)」을 제정, 법률로 정한 품질기준 등을 보유
- 인삼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중앙연구원으로 개칭)’과 ‘고려인삼학회’를 운영
 - 인삼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2000년 7월 농협중앙회에 통합, 2002년 8월 (주)농협인삼주식회사 설립)’의 설치, 운영

2.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인삼산업의 당면과제

2.1 인삼산업을 둘러싼 대내적인 여건변화

□ 인삼의 소비

-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인삼의 효능에 대한 배일이 벗겨지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소비가 증가
 - 국민들의 연간 인삼구입량은 약712g(수삼기준)으로 수삼상태로 약 50% 소비되고, 홍삼(4.9%)·백삼(31.3%)·태극삼(2.0%) 등 1차 가공품으로 38.2%, 농축액·드링크 등 2차 가공품으로 11.8% 소비
- 국내시장에서는 수삼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복용이 편리한 2차 가공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최근 중탕기 보급으로 건삼, 피부백삼, 홍삼 등의 수요가 급증

□ 인삼의 생산

- 인삼은 해가림시설 설치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병충해에 약해 재배관리가 까다로우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경작기간이 길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큼
 - 노동력투입이 노지고추(205시간)의 2배가 소요(502시간)되어 10a당 생산비는 고추(1,116천원)의 7배인 7,970천원 소요
 - 생산면적 조절이 어려우며, 6년근 예정삼포는 중도폐지율 50 %
-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상승, 각종 농자재가격의 인상에 따른 인삼생산의 수익성 악화, 연작피해 등에 따른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구조나 생산기반은 전근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연작장해로 논 5년, 밭 10년 이상 돌려짓기 필요
 - 식재 및 차광시설 설치 등 주 작업의 기계화율이 48%에 불과

<표 2> 연도별 인삼생산 농가 및 재배면적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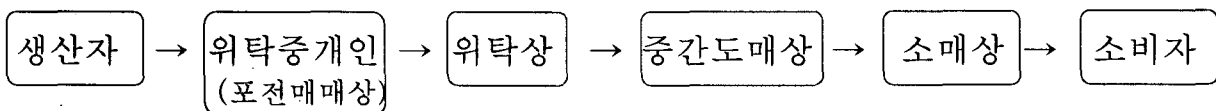
구 분	'90	'97	'99	'00	'01	'02(추정)
○ 재배면적(ha)	12,184	9,903	11,561	12,445	13,018	12,873
○ 생산량(톤)	13,887	11,259	14,500	13,664	13,215	16,662
○ 생산액(억원)	1,978	3,049	3,932	3,728	3,752	5,600
○ 재배농가(호)	36,404	20,399	24,702	23,011	19,310	23,430
○ 호당면적(ha)	0.33	0.49	0.47	0.54	0.67	0.55

- 호당 경지면적은 1990년의 0.33ha에서 오랜 조정 노력 끝에 2002년에는 겨우 0.55ha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영세함
- 민통선 북방, 전남 해안지역 등 신 산지개발을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농지임차 절차의 복잡성과 높은 임차료로 제약

□ 인삼의 유통

- 인삼공사에서 계약수매하는 6년근 수삼(전체의 약 15%)를 제외한 원료수삼 생산량의 80%가 포전매매로 거래
 - 전국 100~200명의 포전매매상이 인삼유통 주도함으로써 생산농가는 거래 교섭력이 취약,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금산시장에서 인삼유통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 결여
 - 수삼은 연근, 크기, 체형, 선택에 대한 등급과 거래단위, 포장자재에 대한 표준규격이 없음
 - 연근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나 큰 뿌리는 6년근, 작은 뿌리는 4년근 또는 5년근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의 인삼품질에 대한 불신초래
- 수삼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6단계, 백삼은 8단계로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유통마진 과다
 - 고가품에 비해 유통비용과 마진 높음(수삼 54%, 백삼 48~70%)

<그림 1> 수삼의 유통경로



□ 인삼의 가공

- 인삼 가공상품은 120여종으로, 크게 홍삼·태극삼·백삼 등 원형삼류와 이를 2차 가공한 농축액, 분말류 등이 있음
- 인삼류 가공 및 제품 제조업체는 529여 개소에 달하나 한국인삼공사 등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가동율저조

- 홍삼전매제도 폐지(1996. 7. 1)후 홍삼류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인삼을 첨가한 기능성제품의 개발 활발

□ 인삼관련제도 및 지원체계

- 홍삼전매제도 폐지(1996), 인삼관리업무의 농림부 이관(1996), 「인삼산업법」상의 규제개혁(1999),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2002)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이제까지의 정부 통제에 의한 인삼산업이 시장질서에 따른 자율농정으로 전환
 - 과거에 비해 인삼의 재배와 수확, 가공, 유통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신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지원은 취약
 - 그 동안 인삼산업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원을 담당해 오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간기업이 되면서 公社에서 융자한 자금으로 추진하던 각종 지원사업이나 정부 대행자로서 公社가 수행하던 公的 기능이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민영화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2.2 인삼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의 변화

□ 인삼의 수출입

-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은 1990년의 165백만불에서 '95년에는 140백만불, 2001년에는 75백만불, 2002년에는 55백만불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과 대만,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인삼소비를 줄이거나 값싼 중국삼이나 서양삼으로 대체, 그리고 1995년 이후 중국의 수입의약품등록제 실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품목별로는 홍삼류가 53%, 백삼류가 42%로 구성되어 있으나 홍삼제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백삼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수출국가는 전 세계의 60여 개 국에 이르고 있으나 80% 정도를 홍콩, 일본 및 대만의 3대 시장에 편중되어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인삼수출 실적

(단위: 백만US\$)

종 류	1990	1994	1995(A)	2001(B)	증감(B/A)
홍삼류	77.9	51.1	74.0	43.8	-40.8
- 뿌리삼	68.9	44.5	63.5	32.0	-49.6
- 제 품	9.0	6.6	10.5	11.8	12.4
백삼류	78.0	53.8	59.1	25.6	-56.7
- 뿌리삼	18.4	12.1	7.8	4.6	-41.0
- 제 품	59.6	41.7	51.3	21.0	-59.1
기 타	9.0	8.7	6.8	5.4	-20.6
합 계	164.9	113.6	139.9	74.8	-46.5

- 우리나라 인삼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 등 경쟁국의 인삼생산 및 수출 노력과 함께 국내 인삼생산의 가격경쟁력 약화, 다양한 제품개발 미흡, 그리고 인삼에 대한 기호와 소비방법, 관련제도가 각기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인삼제품을 중심으로 세계인삼시장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삼제품'을 「인삼산업법」 상의 '인삼류'의 정의에서 제외

□ 교역관련 국제규정의 변화

- GATT협상에 따른 농산물 교역자유화 및 關稅引下 조치로 1995년의 34.1톤에서 점차 확대하여 2004년까지 56.8톤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하고, 같은 기간 관세도 홍삼 838.1%, 백삼 247.6%에서 각기 754.3% 및 222.8%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에서 고려인삼 재배가 확대되고, 한국인의 현지 인삼농장 및 인삼가공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의 평준화되고, 외국산 인삼류의 수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수출국가는 전 세계의 60여 개 국에 이르고 있으나 80% 정도를 홍콩, 일본 및 대만의 3대 시장에 편중되어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인삼수출 실적

(단위: 백만US\$)

종 류	1990	1994	1995(A)	2001(B)	증감(B/A)
홍삼류	77.9	51.1	74.0	43.8	-40.8
- 뿌리삼	68.9	44.5	63.5	32.0	-49.6
- 제 품	9.0	6.6	10.5	11.8	12.4
백삼류	78.0	53.8	59.1	25.6	-56.7
- 뿌리삼	18.4	12.1	7.8	4.6	-41.0
- 제 품	59.6	41.7	51.3	21.0	-59.1
기 타	9.0	8.7	6.8	5.4	-20.6
합 계	164.9	113.6	139.9	74.8	-46.5

- 우리나라 인삼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 등 경쟁국의 인삼생산 및 수출 노력과 함께 국내 인삼생산의 가격경쟁력 약화, 다양한 제품개발 미흡, 그리고 인삼에 대한 기호와 소비방법, 관련제도가 각기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인삼제품을 중심으로 세계인삼시장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삼제품’을 「인삼산업법」 상의 ‘인삼류’의 정의에서 제외

□ 교역관련 국제규정의 변화

- GATT협상에 따른 농산물 교역자유화 및 關稅引下 조치로 1995년의 34.1톤에서 점차 확대하여 2004년까지 56.8톤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하고, 같은 기간 관세도 홍삼 838.1%, 백삼 247.6%에서 각기 754.3% 및 222.8%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에서 고려인삼 재배가 확대되고, 한국인의 현지 인삼농장 및 인삼가공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의 평준화되고, 외국산 인삼류의 수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WTO/DDA협상의 진전에 따라 값싼 중국산인삼의 유입가능성이 커지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 등 인삼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임

□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경쟁국의 노력

-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야산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유기농법이 도입되어 고품질, 고급인삼(Wild Organic Ginseng)으로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있음

2.3 우리나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과제

-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 4>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함

<표 4>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구 분	기 회(O)	위 기(T)
강 점(S)	- 인삼생산, 가공 및 유통 규제완화 - 건강에 관한 소비자관심 증대 -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진 명성	- 경쟁국의 노력과 도전 - 농산물수입개방 가속화 - 중국의 WTO 가입
약 점(W)	-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 연작피해, 경작적지 부족 - 영세제조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 인삼산업 관리체계 미비 - 인삼조합중앙회의 통합 - 인삼공사/인삼연초연구원 기능상실

- 정부는 농가경제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삼산업 중장기발전대책(2000.6)’을 수립하고, ① 생산기반확충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② 유통구조개혁으로 인삼유통의 활성화, ③ 가공산업 육성으로 인삼의 부가가치 증대, ④ 해외홍보 강화로 고려인삼의 우수성 및 차별성 부각, ⑤ 수출확대로 고려인삼의 해외명성 회복, ⑥ 연구기능 강화로 인삼산업육성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을 수반한 가공·유통지원 정책사업은 부진

- 수삼에 대한 품질인증제 추진('02년 3개 농가의 1,800kg 인증) 및 수삼에 대한 표준거래규격 제정 고시(농관원, '03. 3. 24)
 - 농약안전사용교육 등 안전성대책 추진 및 미검사품 등 부정유통근절대책 수립시달('03. 1. 16)
 - 홍콩·대만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고려인삼 우수성에 대한 홍보, 고려인삼 상표등록 확대('01년 15개국 → '02년 18개국)
 - 수출진흥협회의 법인설립 인가('02. 12)로 과당경쟁 방지
-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대응과제는 <표 5>와 같음
-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시한 대응과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5>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대응과제

대응과제	사업내용
인삼생산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품종육종, 양직묘삼 등 우량 종묘생산 및 보급, 유기질비료 등 인삼전용농자재개발, 고품질청정인삼생산, 임간재배 및 산양삼생산, 기계화영농, 전문삼농인육성, 경작면적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인삼경작 기술교육
인삼가공산업 활성화	건강기능성 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인삼제품개발, 인삼저장·포장·보관기술개발, 인삼의 효능규명,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원료구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인삼유통질서 확립	인삼수급조절방안, 계약재배 확대, 고려인삼의 성가유지, 인삼의 품질 및 등급 표준화, 연근·품질·생산지 등의 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불법유통 단속
인삼수출증대 효율적 수입관리	해외시장조사, 수출질서 유지(과당경쟁 및 덤핑판매 방지), 국제인삼상육성, 제품 다양화와 수출선 다변화, 홍보 및 판매촉진, 국제세미나 및 박람회개최, 인삼 Codex규격 제정
인삼관련 지원 제도개선	인삼산업육성을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관련제도개선 및 행정관리체계 정비, 인삼경작기술지도, 생산자단체의 육성, 연구개발 활성화, 생산비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자료: 이동필, 인삼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2003.2.21

3. 인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3.1 인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의 필요성

- 농가의 자본력 부족으로 2~3년 재배 후 포전 판매하기 때문에 후기 재배관리가 미흡하여 원료삼의 품질저하
 -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지원조건 현실화가 필요
- 농가가 유통에 참여하지 못하여 수취가격이 낮는데 반해 소비자는 고가에 구입하는 전근대적인 유통형태
 - 2002년 수삼 kg당 농가수취가격은 21,800원인데 비해 소비자구입가격은 47,200원으로 2배 이상임
- 인삼은 홍삼·백삼 등 1차 가공과 인삼제품의 2차 가공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지만 농가의 자본력 부족으로 가공사업 참여 제한
- WTO/DDA협상 타결 후 관세감축 등 수입개방 확대 시 인삼의 국내·외 가격차이는 더욱 커져 국산 인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 외국인삼과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개별농가로는 기술 및 경영능력, 자본력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가공 및 유통사업 참여와 유통구조 개선, 부가가치의 농가환원 필요

3.2 인삼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 1996년 인삼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기 전에는 인삼산업진흥기금과 담배인삼공사 차입금(1,172억원)으로 식재자금, 원료삼 구입, 유통시설자금 등 인삼의 생산 및 유통개선 관련 각종 사업지원
 - 한국담배인삼공사가 1,172억원¹⁾(구 전매청 경작지원금 437억원, 구 재무부 '인삼산업발전5개년계획'에 의한 공사 추가지원금 735억원)

1) 당초 공사계획에 의하면 1990~'96년 기간 중에 총 2,283억원을 용자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민영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1994년부터 지원 중단

- 을 연리 1.5%, 1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생산자단체에게 융자하여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민영화로 상환
- 공사 및 인삼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조성한 인삼진흥기금 131억원(1995년)은 식재자금 등 인삼산업발전에 활용하였으나 인삼부문의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된 후 이 기금을 농특회계에 편입
- 1996년 인삼산업을 농림부로 이관한 이후부터 농특회계와 농안기금으로 가공용 원료수매자금('03 : 224억원) 및 종합처리장(6개소 : 1,860백만원) 설치 지원으로 판매 및 가공사업 추진
- 농특회계는 농업경영자금으로 식재자금, 시설현대화, 우량묘삼생산 사업에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조건 : 3~5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4%
- 농안기금은 가공용 수매자금과 출하장려사업 등에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 지원조건 : 1~2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4~5.5%(자부담 20~30%)

3.2 정부의 인삼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 인삼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의 문제점

- 농특회계자금의 지원조건 등이 농가의 기대 수준에 미흡하여 인삼 경작자들의 자금수요 제한
- 인삼은 특성상 4~6년 장기재배로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예정지관리와 차광시설로 초기자본이 생산비의 72%나 투입되는데, 지원단가가 낮아 자본력이 부족한 농가는 수확전 대부분 상인에게 판매
 - 지원단가 : 5,000원/평('01년 평당 경영비 17,160원의 29%)
- 예정지관리와 재배기간을 감안하면 3~5년 일시상환 조건으로는 농가

의 자본부담이 많아 농특회계 지원자금 이용 곤란

- 농안기금은 단기자금으로 농가에서 지원신청을 기피하여 인삼부문 자금회전율이 1999년의 132%에서 2002년에는 43%로 하락
 - 가공용 원료수매자금(224억원)은 2년 일시상환이나 자부담의무 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지원받기 어려운 자금임
 - 고년근(6년근)출하장려사업(72억원/자부담 20%)은 1년 일시상환으로 장기간 재배하는 인삼농가의 지원조건으로 현실성 결여²⁾
- 인삼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액 규모가 1996년의 986억원에서 1998년의 633억원, 2002년의 471억원으로 감소하고 경작농가들의 불만 팽배
 - 농림부 이관(1995년)전후 지원조건 비교
 - 금 리 : (이관전) 1.5% → (이관후) 4~5.5%/년
 - 상환기간 : (이관전) 5~6년 → (이관후) 1~5년 일시상환

□ 인삼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의 개선방향

- 농안기금지원사업을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으로 전환 추진
 - 가공용 수매지원사업자금('03년 : 224억원)중 영농조합법인과 민간업체 지원분('02년 : 28억)을 제외하고는 자금지원을 축소, 고년근 출하장려사업자금('03년 : 72억원)은 지원을 중단, 이를 통합하여 인삼생산·가공·판매 계열화사업으로 전환
 - 계열화사업자금은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가공·판매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
- 농특회계 지원조건 개선
 - 식재자금 지원단가를 2003년 현재 경영비의 29%(평당 5,000원)

2) 2000년 인삼조합과 농협 통합시 인삼경작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기존 농협의 채소수급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고년근의 대부분이 한국인삼공사가 계약재배하고 있어서 지원기간 1년에 일반영농자금금리와 같은 조건으로는 이를 통한 고년근 원료삼 확보 한계

수준에서 2004년에는 50%수준으로 상향조정

- 식재자금 지원기간을 예정지관리를 감안하여 현행 3~5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연장하여 4~6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조정

4. 생산자단체를 통한 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

4.1 인삼계열화사업의 추진배경

□ 인삼유통구조 개선

- 수확한 인삼의 70-80%가 일부 중간유통상에 의해 포전매매되는 인삼유통의 특성상 생산농가는 거래 교섭력이 취약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품질을 알기 어려운 인삼을 소비
 - 계약재배에 의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삼을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마진 절감

□ WTO/DDA협상 대비 우리나라 인삼유통 차별화 대책

- 쌀 공급과잉에 따른 생산조정제, 마늘 구조조정사업, FTA 등 농업 구조 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인삼이 대체작물로 각광을 받고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
 - 2004년 기준 SSG포함 관세가 수삼 297%, 홍삼은 1004%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DDA협상진전에 따라 인삼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인삼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인삼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고려인삼의 대외적인 신인도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인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품질차별화 필요

□ 고려인삼의 수출감소 대책 강구

- 국내 인삼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경우 WTO/DDA협상이후 외국산 인삼의 대량유입과 함께 국내 인삼산업의 기반이 위태로워 질 것으로 예상
 -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차가 14배에 달함
- 선진국 수출을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농약살포를 하지 않을 경우 병충해발생에 따른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
- 호주 등에서도 국산 인삼류와 동일한 종자로 유기 재배하여 국내시장까지 진출을 추진중임
 - 세계명품으로써 품질을 인증한 고려인삼의 차별적 마케팅

□ 고품질수삼 및 우량 원료삼의 안정적인 확보

-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주력 품목인 홍삼(5~6년근)용 원료삼 재배기피로 원료삼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계약재배하는 약 15%를 제외하고 고년근 인삼확보의 어려움
- 장기재배시 병충해 다량 발생으로 농가가 고년근 재배 기피
 - 고년근 비중 : '97(31.1%)→'99(24.0%)→'01(20.4%)→'02(14.6%)

<표 6> 용도(연근)별 원료삼의 재배실태

(단위: ha)

구 분	1997	1999	2001	2002
합 계	11,259	14,500	13,215	16,662
백삼포(4년근)	7,756	11,024	10,517	14,225
홍삼포(5, 6년근)	3,503	3,476	2,698	2,437
홍삼포 비중(%)	31.1	24.0	20.4	14.6%

4.2.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의 구상과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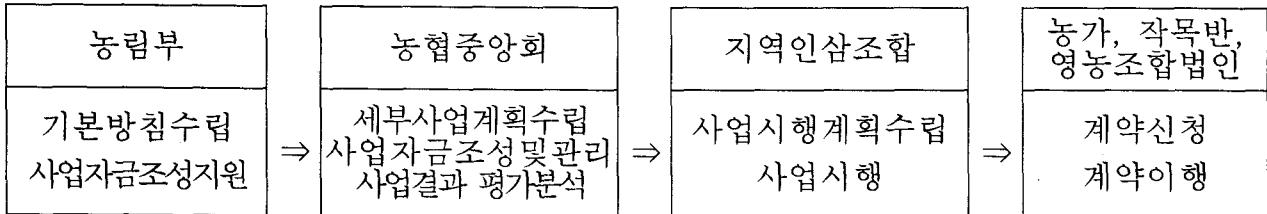
□ 계열화사업의 기본구상

- 농림부 T가 추진중인 농산물수급안정화사업과 같이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인삼 생산·가공·유통을 계열화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제 값을 받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싼값에 좋은 품질의 인삼을 공급

- 정부융자금 : 농안기금에서 80%(6년거치 무이자)
- 자 체 자금 :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자조금형태로 20%

<그림 2> 인삼 생산-가공-유통사업 추진체계(안)



- 농림부가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안기금에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농협중앙회에 용자하면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인삼산업육성자금(가칭)]을 조성하여 지역인삼조합에 지원
 - 인삼식재 후 지역인삼조합과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역조합에 수확기 계약재배생산물의 수매를 위한 자금과 수매물량의 가공·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는 계약재배, 수매 및 가공·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의 일정비율을 농가에 환원

□ 계열화사업의 추진방법

- 지역인삼조합이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과 계약을 하여 수삼을 구입하는 형태로 계약
 - 계약주체는 계약금 및 중도금형태로 대금을 지불한 후 이를 인수하여 가공, 판매하고 계약대상자가 출하까지 계약물량 관리

- 계약주체는 판매후 사업성과를 정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간에 공동배분
- 사업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조합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계약 미이행자 : 계약금 등 지원자금 및 위약금 징수

4.3 계열화사업의 기대효과

- 인삼수급계획에 따라 계약량을 조절함으로써 수급불안정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자들은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이 안정적인 소득 확보
 - 특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생산농가나 작목반, 영농법인등을 대상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표준경작법이나 비료 및 농약사용, 기타 재배 및 가공방법과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삼의 품질향상과 생산구조 조정, 생산비 절감
 - 계약재배 농가는 생산물량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가능
- 포전거래와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함에 따라 인삼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인삼에 대한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생산자단체가 인삼의 유통·가공사업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게 되며, 규모화 된 생산자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다양한 신 상품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등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수출확대
- 국내 인삼재배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생산한 인삼인지 추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차별적 유통의 과학적 근거 확립
 - 산양삼, 유기농재배인삼 등 계약재배로 인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

삼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주문생산과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적 유통 가능성

-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삼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계획적인 제품 생산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
 - 유통·가공사업 참여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의 농가환원

5. 생산자단체의 인삼계열화사업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4.1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자금의 확보

- 2004~'07년 동안 매년 인삼 수확면적의 10%인 500ha에 대해 경영비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대신 생산자단체에 출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재배를 한다고 할 경우, 이렇게 생산한 인삼을 수매하여 수삼 또는 가공제품 형태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약 213,600백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매년 2년근 식재농가를 대상으로 약 500ha 정도 계약재배³⁾하되, 경영비의 50%(평당 8,000원)수준을 지원, 절반은 수매시 지불
 - 계약한 인삼이 수확 될 때까지 당분간 현행 가공용 원료인삼수매자금(224억원)과 고년근 출하장려금(72억원) 규모(294억원)만큼 수매하여 가공 및 유통사업을 추진⁴⁾
 - 현행 수매대금(294억원)의 약 40%인 120억원을 지역조합의 가공유통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지원
- 원칙적으로 정부가 농안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3) 한국인삼공사는 매년 600~700ha의 원료삼을 계약재배하고 있어서 2008년이 되면 수확량의 약 25%를 농협과 인삼공사가 계약재배 형태로 생산, 수매하게 되는 것임

4) 2003년 현재 지역조합의 수매예상량은 약 1,600톤으로 매년 20%만 성장하면 계약재배 물량(약 2,300톤)의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남은 물량이 있으면 인삼공사 등 제조업체나 대형유통업체 등에 판매

생산자단체도 인삼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작자보호를 위해 예산의 20% 정도 자체자금을 출연하여 [인삼산업육성자금(가칭)]을 조성

<표 7> 인삼 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 규모 추정

구	분	합 계	2004	2005	2006	2007
합 계 (백만원)	계	213,600	53,400	53,400	53,400	53,400
	정 부	170,880	42,720	42,720	42,720	42,720
	농 협	42,720	10,680	10,680	10,680	10,680
계약 재배	면 적(ha)	2,000	500	500	500	500
	지원액(백만원)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수매 사업	물 량(톤)	9,200	2,300	2,300	2,300	2,300
	지원액(백만원)	117,600	29,400	29,400	29,400	29,400
운영자금(백만원)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자료 : 농협중앙회 인삼부, 2003

-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삼경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채소수급안정사업’ 및 ‘과실계약출하사업’ 등에 준해 장기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8> 농림부의 농산물수급안정화사업 추진 실태

구 분	채소수급안정사업		과실계약출하사업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사업시작	1995년	2001년	2001년
대상품목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7개품목)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5개품목)	사과, 배, 단감, 감귤 (4개품목)
사업자금 (‘03계획)	5,300억원(정부80%, 중앙회 10%, 조합10%)	1,972억원(좌 동)	2,410억원(좌 동)
사업방식	○ 계약재배에 의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과잉시 최저 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산지 폐기, 정부수매 등) ○ 매취형 위주(수탁형가미)	○ 품목별생산자조직(협 의회)을 통한 자율적 출하조절 ○ 수탁형	○ 출하계약을 통해 확 보한 물량 출하조절 (가격차보전) ○ 매취형, 수탁형
지원조건	10년거치, 무이자	좌동	좌동

- 정부지원자금은 금리 속에 수수료 개념(조합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별도 수수료가 없으면서 손실보전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무이자 지원이 필요
- 인삼 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 예산은 사업규모에 따라 각기 달리 추정할 수 있는데 수확면적의 10%를 계약 재배한다고 할 경우 매년 약 5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수확면적의40%를 계약재배하고 이를 수매하여 가공, 유통한다고 할 경우 연간 약 2천 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일반적으로 6년근 인삼을 계약재배 한다고 할 경우 수확하기까지에는 기본적으로 4~5년간의 계약이 필요함

<표 9> 계약재배 규모별 연간 소요예산 추정

(단위 : 억원)

계약재배 규모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운영자금	합계
수확면적 10%(500ha)	120	294	120	534
수확면적 20%(1000ha)	240	595	238	1,073
수확면적 30%(1500ha)	360	892	357	1,609
수확면적 40%(2000ha)	480	1,189	475	2,144

4.2 이익환원 및 손실보상시스템 구축

- 생산자단체에 의한 가공-유통사업의 추진이 농가의 부가가치 증대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1) 생산자단체의 가공-유통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2) 가공 및 유통에서 얻은 수익을 농가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3)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생산자단체가 인삼 가공 및 유통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0~40%는 될 필요가 있음

- 인삼부문의 판매 및 가공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2002년 현재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삼은 3.7%, 가공제품류는 8.6%에 불과
- 장기적으로 생산자단체에 의한 판매사업의 비중을 2005년에는 10%, 2010년에는 40%로, 가공사업 비중을 2005년에는 15%, 2010년에는 40%로 확대하면 유통단계 축소 및 차별적 유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이를 농가에 환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 10> 2002년 생산자단체의 인삼시장 점유율

(단위 : 억원)

구 분	수 삼	가공제품류	합 계
전체 시장	5,600	6,300	11,900
농 협	205	540	745
점유비(%)	3.7	8.6	6.3

- 생산자단체가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과 계약을 하여 수삼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 판매하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생산자단체의 가공 및 유통사업 성과가 경작자들에게 환원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주체는 계약, 수매, 출하 및 가공경비 등 제비용을 공제한 순 판매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이를 손익으로 처리하되 판매후 정산하여 일정규모 이내(예 : 20%이내)의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주체가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약주체와 대상자간에 공동배분할 필요가 있음
 - 인삼경작자나 작목반 등의 경우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경작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간 높은 위험을 내포하여 일정규모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계약주체와 농협중앙회

유통손실보전자금에서 손실금의 상당부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4.3 생산자단체의 인삼 가공 및 유통사업 기반확충

□ 농협의 인삼 가공 및 유통사업 실태와 문제

- 인삼조합의 주요사업은 경작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이지만 경제사업(구매, 가공, 판매)은 여타 품목조합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신용사업도 전문성 결여로 부진하며, 정책자금 용자 위주로 운영
- 판매사업은 상설 판매장(중앙회 1개소, 지역조합 8개소)에서 소매위주로 수삼 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량, 변질 등에 따른 손실 우려로 취급 미미하였으나 농협과 통합이후 다소 활기를 띠
- 가공사업은 중앙회 고려인삼창과 회원조합의 가공공장(11개소)에서 원료삼을 수매하여 홍삼 등을 제조하여 조합 직판장 및 농협 계통 조직 판매장을 통하여 판매

<표 11> 2002년도 인삼조합의 경제사업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인삼조합		기타 품목조합		A/B(%)
	계	조합당(A)	계	조합당(B)	
판매사업	205	16	2,580	27	59.3
가공사업	356	29	11,936	127	22.8
구매사업	126	10	5,335	56	17.9

<표 12> 농협의 인삼 판매 및 가공사업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0(A)	2001	2002	2003(계획:B)	B/A(%)	
판매사업	65	121	205	240	369	
가공사업	중 앙 회	57	131	184	200	351
	회원조합	196	228	356	505	257
	소 계	253	359	540	705	278
합 계	318	480	745	945	297	

- 인삼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삼유통 참여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사업여건이 미비
 - 일정한 품질의 수삼용 원료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작목반 조직이나 원료수삼 비축을 위한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유통기반 취약
 - 원료수삼 수매 및 비축을 위한 자금부족
 - 현행 정부의 가공용 인삼수매자금 224억원과 출하장려자금 72억원은 2002년 총생산액 5,600억원 대비 5.2%에 불과
- 1996년 홍삼전매제도 폐지이후 가공공장 규모화 등 인삼조합의 가공사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가공시설 부족으로 외부 일반 가공업체에 OEM에 의한 생산 비중이 높음

□ 농협의 인삼 가공 및 유통사업 활성화방안

- 농협이 대규모 계약재배에 의해 다량의 수삼을 확보할 경우 이를 가공 또는 유통하기 위한 신제품개발, 시설확장, 판로개척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됨
 - 현행 인삼조합의 소매형태 판매장으로는 인삼유통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삼 및 가공제품류의 판매를 위한 대형판매장, 소매 및 도매기능을 위한 공판장 등 다양한 판매장이 필요
 -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연구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

(1) 수확후기술 개발 및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 인삼주산지에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 산지유

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함으로써 산지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비용 절감

- 집하 선별, 예냉, 저온저장, 소포장을 위한 시설, 기계 및 장비를 보급하여 저온냉장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 인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

○ 예냉기술 및 소포장재 개발, 이온살균 저온세척기 설치, 인삼전용 P-Box 등 수확후 관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 2003년 3월 현재 9개 회원조합에서 총 6,807백만원 규모의 유통시설 투자를 계획 중임

(2) 인삼조합 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신제품 개발

○ 지역인삼조합 중 11개소에서 원형삼(홍삼, 백삼 등)위주의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 제품류의 경우는 대부분 OEM 생산하고 있어서 고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짐

○ 조합별로 경쟁력 있는 제품위주로 특화 함으로써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원형삼 위주의 가공공장을 액기스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강 기능성제품생산으로 전환

-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역사, 전통 등과 결합한 복합상품개발

○ 인삼 및 홍삼을 활용한 제품, 음료 등 기능성 식품개발

- 농협중앙회가 부설 식품연구소를 확충하고 산학협동연구 등을 통해 효능위주의 연구에서 제품소비 확산을 위한 소비자 지향적인 기능성제품 및 소포장제품을 개발, 지역조합에 기술이전

※ (예) 전국의 농협사업장(또는 약국 등)에 홍삼중탕기를 배치하고 인근이나 품질인증 된 원료삼을 독점 공급, 판매하는 등 새로운 상품과 유통채널 확보

(3) 가공인삼류의 브랜드통일 및 연합마케팅 실시

- 현재 농협중앙회의 한삼인(고려창)을 비롯하여 한송정(개성), 황풍정(풍기), 삼지원(금산)등 여러 종류의 지역조합 브랜드가 난립하여 브랜드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표 13> 지역인삼조합의 인삼제품 생산 및 상표사용 실태

조합	제조	판매	상표	제품명	주원료
강화	강화삼협	수출	-	홍삼류, 태극삼류	수삼
김포	김포삼협	김포삼협	통일인삼	태극삼(고려태극삼), 태극삼분말	수삼
개성	개성농협	개성농협	한송정	백삼 및 피부백삼, 인삼정과, 인삼절편, 홍삼정	수삼
용인	용인삼협	용인삼협	용정삼	홍삼분말(고려홍삼분말), 홍삼음료(역홍록33)	홍삼, 홍삼액기스, 한약재
충북	충북조합	충북조합	정삼인	홍삼차골드, 홍삼정골드, 홍삼정, 홍삼절편, 홍삼분말, 봉밀절편홍삼, 봉밀절편삼, 홍삼	홍삼
영동	영동삼협	영동삼협	-	태극삼류, 백삼	수삼
서산	서산삼협	수출	서산인삼	태극삼류	수삼
부여	부여삼협	수출	-	태극삼류	수삼
금산	금산삼협	수출	삼지원	홍삼류	수삼
전북	전북삼협	전북삼협	한전삼	홍삼정	수삼, 홍삼엑스
풍기	풍기삼협	풍기삼협	황풍정	홍삼류, 태극삼류, 백삼류	수삼
강원	강원삼협	강원삼협	-	백삼 및 피부백삼, 홍삼, 태극삼, 인삼야채죽	수삼, 인삼, 쌀, 야채

- 농협에서 생산한 인삼에 대해 표준규격을 설정하고 브랜드를 통합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 수삼의 연근, 크기, 체형, 색택에 대한 등급과 거래단위, 포장자재에 대한 표준규격 설정
 - 중앙회 및 인삼조합 매장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홍보 등 비용절감 가능하고 표준화된 공정관리를 통하여 품질 향상

- 농협중앙회 및 회원농협을 통한 연합마케팅 촉진
 - 중앙회 종합유통센터, 대형매장에 수삼 및 각종 인삼제품류 판매전용 코너 설치, 회원 인삼조합 제품류 판매 확대
 - 회원 인삼조합의 소형 전문매장 확대 설치 및 판촉기능 강화
 - 소매 및 직판은 농협 계통조직 판매장에서, 도매는 권역별 농협공판장을 통한 경매로 판매확대
 - 수도권에 위치한 농협유통센터에 농협직영의 수삼센터를 설치
- 농협 공동브랜드 소비자인지도 제고 후 삼성데스코, CJ홈쇼핑, 롯데마트 등 민간 유통업체에 인삼류 공급 추진 등 협력사업 실시

4.4 생산자조직(작목반)의 육성 및 철저한 품질관리

- 인삼생산-가공-유통계열화사업이 생산구조조정이나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작목반조직을 통한 인삼의 묘종이나 재배방법, 비료 및 농약사용 등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됨
- 특정지역의 인삼경작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작목반 결성을 유도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통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시범인삼작목반규약(안)]을 예시, 작목반 결성을 지도하며, 각종자금의 우선 지원 및 토양검사, 농약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방안 강구
 - 조합별로 인삼재배시범포와 시범묘포를 설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의한 안전·청정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
 - 식재예정지의 토양성분을 분석하여 인삼재배 적합성 여부를 판별, 재배적지알선 등 계약재배의 기초자료로 활용, 고품질인삼 생산
- 농산물의 경우 품질인증제도와 같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재배한 인삼이라는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삼이력증명제도]를 도입, 식탁에 오르기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적 유통근거 확보